

## 가네이시 성터와 정원

가네이시 성은 1528년 축성 때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쓰시마의 다이묘인 소 씨 일족의 본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한 건물이었으나 1660년대에 성벽과 망루를 갖춘 성곽이 되었습니다.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의 교역으로 번창하면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성하 마을인 이즈하라가 화재 이후 재건된 것과 같은 시기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소 가문은 가네이시 성이 확장되어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1678년에 더 큰 규모의 사지키하라 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는 조선의 통신사를 맞이하는 외교적인 임무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절단은 쓰시마를 경유해 에도 막부에 파견되었고 그 인원수는 45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 가문은 쓰시마에서 사절단의 숙박과 에도(현재의 도쿄) 수행 등을 담당했습니다.

소 가문은 가네이시 성을 별장으로 남겨 두었으며 1690년대에 신지이케라는 연못을 중심으로 작은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811년으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사절단이 일본에 방문했을 당시 쇼군의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로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이 때 조선통신사는 양측이 합의한 비용 절감 조치로 쓰시마까지만 이동했습니다.

현재 쓰시마 박물관이 된 부지에는 가네이시 성의 성벽이 일부 남아 있으며, 성 정문의 망루문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매립되었지만, 1990년대에 복원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